

생산 따로 가공 따로...농수산물 소득 절반 역외 유출

심각한 전남 농수축산물 역외 가공·유통

지역 자급의 역외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역외 가공·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내 관련 기업이 적고, 영세한데다 가공기술 경쟁력도 낮아 지역 농수축산물이 원물 상태에서 싼 값에 타 지역으로 넘어가 가공되고 있는 것이다. 가공·유통 과정에서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농수축산물의 특성상 전남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농수축산물의 지역 내 생산-가공-유통-소비 시스템을 정착시켜 이를 통한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소득 향상 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 농수산물, 생산량에 비해 낮은 소득·생산액-농산물의 경우 지난 2017년 319만2260t, 7조3909억원 어치를 생산했으나 소득액은 3조9903억원으로, 소득률은 52.7%에 불과했다. 생산량 비중이 높은 채소의 생산액은 4조196억원(197만6859t)이지만 소득액은 2조1471억원(53.4%), 2조2858억원(97만1707t)의 생산액을 보인 식량작물은 1조1983억원(56.6%)의 소득액을 보였다.

수산물도 이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2018년 전남지역 어업생산량은 184만 2000t으로 전국 생산량(329만 8000t)의 56%를 차지하지만, 생산액은 2조 8670억원으로 전국 생산액(7조 4781억원)의 38% 수준에 머물렀다. 수산물의 가공점유율은 26% 정도로, 냉동·통조림·조미가공·염장 등으로 가공되는 상품 생산량은 36만6685t, 생산액은 1조46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물의 절반 이상이 원물 상태로 거래된다고 가정하면, 3분의 2가 타 지역에서 가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충남의 한 김 가공업체는 전남산 물김으로 '오미자김'을 개발, 중국에 수출해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등 전남산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한 가공 상품은 오히려 타 지역에서 만들어져 유통·수출되고 있다.

◇농수축산 관련 기업 대부분 영세, 매출 1000억원 이상 단 2곳=전남에서 2017년 1000억원 이상 매출을 보인 업체는 1284여억원의 장성의 보해양조(주), 1122여억원의 남양유업(주) 나주공장이다. 보해양조는 차(茶), 남양유업은 유산균음료, 낙농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수산물 가공업체 가운데 2017년 가장 매출이 높은 곳은 통조림품을 생산하는 목포의 삼진물산(주)으로, 매출 규모는 733억원이다. 매출 2위는 조미가공품을 생산하는 (주)신안전사김으로 37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100억원 이상 수산물 가공업체는 19곳으로, 100억~200억원 소규모에 17곳이 몰려 있다.

전국 생산량 56% 점유 수산물 생산액은 38%에 머물러 부가가치 대부분 타지역 차지

이들 업체의 대부분이 자체 상품을 만들 기보다는 대기업의 공장이거나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상품을 만드는 하청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영세하다보니 대량으로 농수축산물을 사들일 수 없어 공장 가동률이 낮고, 대기업의 하청이 수익은 적지만 안정적이다"며 "별도의 마케팅은 해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생산-가공-유통-마케팅-소비 시스템 구축 시급=소비자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완도해양바이오센터 등 관련 기관의 농수축산물 가공상품의 개발 및 기술 전수, 잠재력 및 경쟁력 있는 농수축산물 가공업체 집중 육성, 1조원 이상 식품 대기업 및 세계 유수의 식품 관련 연구소 유치 등이 우선 시급한 과제다. 지역기업, 전남도, 시·군 등이 연계해 전남도내에서 생산되는 가공 상품의 독자적인 유통망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내에서 이미 개발·생산된 농수축산물 가공상품 가운데 상당수가 매출 부진, 홍보·마케팅 미흡 등으로 인해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사장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이 지역 내에서 얼마나 가공·유통되고, 어떻게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지, 그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진행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여전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생산으로, 중간도매상과 타 지역 가공·유통업체만 부가가치를 독차지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지역 내의 노력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현철 광주전남연구원 농수산해양연구실장은 "농수축산물 가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가 급변하고, 상품의 수명도 계속 짧아지고 있어 영세기업이 자체적으로 지역 대표 가공상품을 개발해 유통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건강을 우선하고 높은 가격도 받아들이는 소비층을 상대로 해 기업-지자체-연구기관이 함께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 가공·유통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청소년 민주주의 축제 '5·18레드페스타' 지난 2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전국 청소년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축제 '5·18레드페스타'가 열렸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5·18 美기밀문서 원본공개 촉구...청와대 국민청원 진행

5·18기념행사위원회 "정부, 미국에 요구해달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미국 기밀문서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이하 5·18행사위)는 "지난 24일부터 5·18 미국 기밀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7일 청원계시판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3월31일부터 100명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청원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5·18 미국 기밀문서 공개 요구 청원은 현재 100명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5·18 관련 미국 미공개 자료 공개를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5·18행사위, 5·18기념재단,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5·18관련 미국 기밀문서 원본 공개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전 진행된 미국의 5·18비밀자료 공개 촉구 광주전남 시민선언 온라인 서명 운동에는 1114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원을 시작하게 된 배경으로 '이미 공개된 미국 자료는 대부분 국무부

소유로 국한돼 있고 공개된 자료마저 상당 부분이 삭제돼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5·18재단, 5·18기록관, 연구자들은 한국 자료가 대부분 왜곡·조작된 상황에서 미국 자료에 5·18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민간·연구 단체로서 미 정부의 공식 기밀문서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확보한 자료도 일부 내용이 누락 또는 삭제된 상태였다.

이들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 미국 국무부·CIA에서 이미 공개한 문서 중 삭제 조항이 없는 원본, 백악관 정책결정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NSC)·백악관 상황실·국방부 등이 1979~1980년 작성한 한국·광주

관련 기밀문서 등을 요청, 확보해 5·18 진상 규명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경우 수십 년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끝에 1973~1983년 비밀라 군사정권 관련 미국 기밀문서(16개 기관 보유 5만여 쪽)를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 사이 이관받아 납치·고문·암살 등에 대한 진상규명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광주지역 5·18연구자는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 행적을 봤을 때 5·18 관련 기밀문서 제공을 흔쾌히 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독 베를린서 5·18 39주년 기념행사 추모식·학술대회 등 3일간 진행

올해로 39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독일 베를린에서도 이어졌다. 26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재유럽 5·18민주화운동기념위원회는 현지시각으로 전날 오전 9시 30분께 '제39회 재유럽 5월 민주제'를 열었다.

추모식에는 정병구 주독한국 대사와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격려사와 연대사를 전했다. 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세계로 알린 '푸른 눈의 목격자'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의 부인과 동생 등도 자리에 함께했다. 추모가와 분향으로 마무

리된 추모식은 '오월 정신 계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 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로 이어졌다.

행사는 지난 24일 배우 추상미가 연출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관람하고 토론한 것을 시작으로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이

로 진행됐다. 독일 친지와 지인들이 행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독일-한국어 동시통역이 제공됐다.

재유럽 5·18민주화운동기념위원회는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이번 행사가 오월에서 평화의 한반도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연합뉴스

2019 여름휴가, 600년 광한루가 부른다

가자! 별이 쏟아지는 정령치 밤하늘, 남원으로

광한루 600년 기념주간 ·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 한 여름밤의 소리여행
 (8. 2 ~ 8. 6) (5. 18 ~ 9. 28) (7. 28 ~ 8. 15)

지리산의 계곡 · 정령치의 밤하늘,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